

ICDC Weekly

인천광역시 감염병 주간소식지



홈페이지 바로가기

발행일 2024. 11. 6.(수) 통권 제26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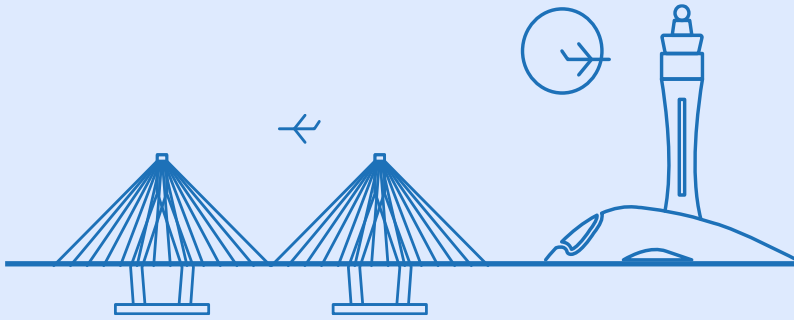
발행처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2층

연락처 032-440-8031

- 01 주간 감염병 소식
- 02 인천광역시 감염병 전수감시 신고 현황
- 03 감염병 표본감시 신고 현황
- 04 국내외 감염병 발생동향
- 05 홍보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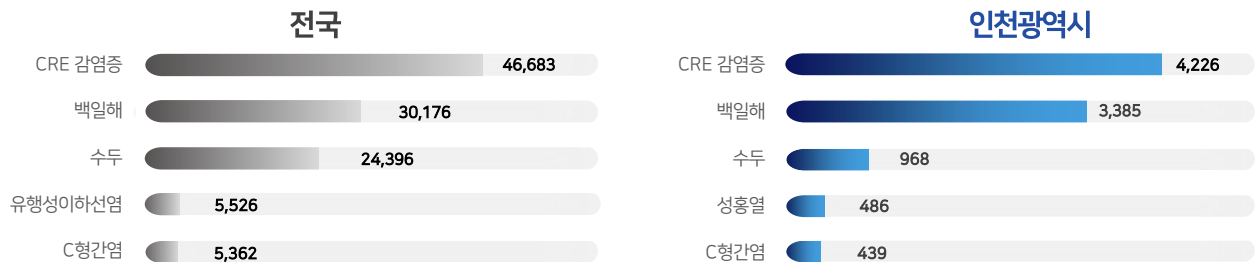
[부록] 2024년 백일해 발생 현황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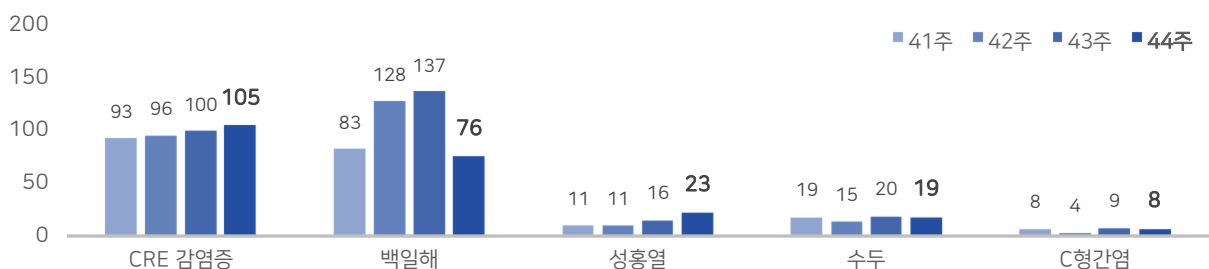
주간 감염병 소식

전국 및 인천광역시 감염병 누적 신고 현황



- (전국) 전국 감염병은 CRE 감염증 46,683건, 백일해 30,176건, 수두 24,396건, 유행성이하선염 5,526건, C형간염 5,362건 순으로 신고됨
- (인천) 인천광역시 감염병은 CRE 감염증 4,226건, 백일해 3,385건, 수두 968건, 성홍열 486건, C형간염 439건 순으로 신고됨
- 신고현황은 '24. 11. 6(수)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 감염병통계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24년 누적기간(1주차~44주차)에 신고된 다빈도 5개 감염병에 대한 누적신고 건수임

인천광역시 다빈도 감염병 주요 신고 현황



- 44주차 인천광역시 감염병은 총 244건 신고되었으며, 최근 3주(41~43주) 평균(264건) 대비 20건 감소함
- 신고수 상위 5개 감염병은 CRE 감염증 105건, 백일해 76건, 성홍열 23건, 수두 19건, C형간염 8건 순서임
- 소식지 내 인천광역시 감염병 전수감시 신고 현황(2페이지)을 참조

인천광역시 감염병 전수감시 신고 현황

구 분		인천								전국			
		2024				동기간대비 (1-44주)				동기간대비 (1-44주)			
		44주	43주	42주	41주	2024	2023	증감	5년 평균	2024	2023	증감	5년 평균
1급	보툴리눔독소증										1	▼ 1	0
2급	수두	19	20	15	19	968	953	▲ 15	1,005	24,396	20,762	▲ 3,634	21,234
	홍역					2		▲ 2	0	47	5	▲ 42	12
	장티푸스					2		▲ 2	2	22	16	▲ 6	32
	파라티푸스					1	2	▼ 1	2	18	21	▼ 3	30
	세균성이질					3	2	▲ 1	2	34	31	▲ 3	28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1	9	5	▲ 4	8	223	197	▲ 26	206
	A형간염	5		1	1	58	49	▲ 9	212	1,008	1,125	▼ 117	2,578
	백일해	76	137	128	83	3,385	2	▲ 3,383	679	30,176	76	▲ 30,100	6,084
	유행성이하선염	4	4	3	4	284	380	▼ 96	349	5,526	6,872	▼ 1,346	6,868
	풍진												0
	수막구균 감염증								0	15	10	▲ 5	7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	1	- 0	1
	폐렴구균 감염증			1	1	28	35	▼ 7	25	362	343	▲ 19	304
	한센병								0	2	2	- 0	2
	성홍열	23	16	11	11	486	23	▲ 463	134	5,005	580	▲ 4,425	1,766
	VRSA 감염증									1		▲ 1	3
	CRE 감염증	105	100	96	93	4,226	2,554	▲ 1,672	2,348	46,683	32,653	▲ 14,030	27,955
	E형간염	2	1	2		42	27	▲ 15	24	625	463	▲ 162	485
3급	파상풍					4	2	▲ 2	1	28	20	▲ 8	22
	B형간염					16	14	▲ 2	18	222	275	▼ 53	300
	일본뇌염					1	1	- 0	1	8	17	▼ 9	12
	C형간염	8	9	4	8	439	519	▼ 80	569	5,362	6,236	▼ 874	7,521
	말라리아		1	3	3	119	125	▼ 6	80	676	733	▼ 57	495
	레지오넬라증					27	19	▲ 8	24	360	394	▼ 34	354
	비브리오패혈증				1	4	8	▼ 4	5	46	69	▼ 23	55
	발진열					1	1	- 0	1	15	13	▲ 2	7
	쯔쯔가무시증	2	2			7	28	▼ 21	18	1,861	2,435	▼ 574	1,996
	렙토스피라증						1	▼ 1	1	37	46	▼ 9	68
	브루셀라증						1	▼ 1	0	5	4	▲ 1	5
	신증후군출혈열					5	4	▲ 1	4	243	326	▼ 83	224
	CJD/vCJD					6	2	▲ 4	3	57	59	▼ 2	57
	뎅기열				1	12	12	- 0	6	170	155	▲ 15	88
	큐열						3	▼ 3	2	46	48	▼ 2	51
	라임병					1	8	▼ 7	2	22	39	▼ 17	20
	유비저									2	2	- 0	2
	치쿤구니야열									3	11	▼ 8	4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1	4		▲ 4	3	132	196	▼ 64	185
	지카바이러스감염증										2	▼ 2	1
	엡슈스									13			
	매독		3	5	2	133				2,370			
	매독(선천성)									14			

- 44주차(2024. 10. 27. ~ 2024. 11. 2.) 전수감시 신고 현황은 2024. 11. 6(수)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 감염병통계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매해 통계 자료는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5년 평균은 최근 5년(2020-2024)의 1주부터 해당 주까지 누적 신고수의 평균이며, E형간염은 최근 4년(2021-2024)의 1주부터 해당 주까지 누적 신고수의 평균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 감염병 감시체계를 통해 보고된 감염병 환자 발생 신고를 기초로 집계되며, 감염병별 신고범위에 따라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가 포함될 수 있음

- 지역별 통계는 환자 주소지 기준으로 집계함 (단, VRSA 감염증과 CRE 감염증은 신고한 의료기관 주소지 기준임)

- 최근 5년(2020-2024)동안 발생이 없었던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아토병,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중증호흡기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콜레라, 폴리오, 발진티푸스, 공수병, 황열, 웨스트나일열, 진드기 매개뇌염은 제외함

감염병 표본감시
신고 현황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현황

주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현황(2024-2025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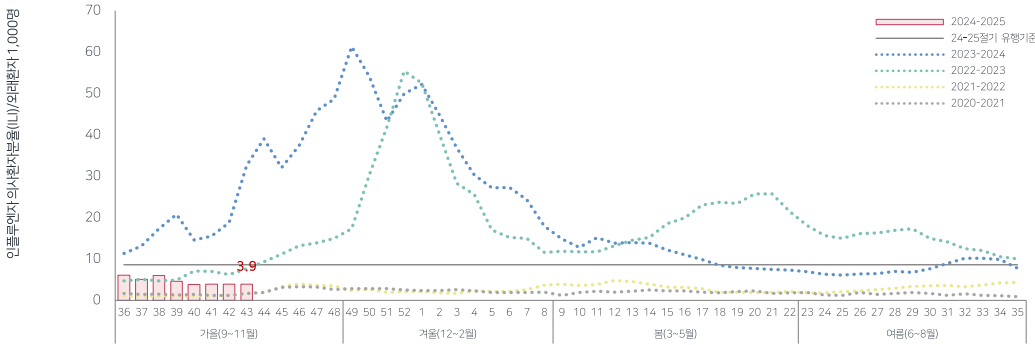
- (전국) 43주차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3.9명으로 전주(3.9명) 대비 동일

※ 2024-2025절기 유행기준은 외래환자 1,000명당 8.6명

단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진료환자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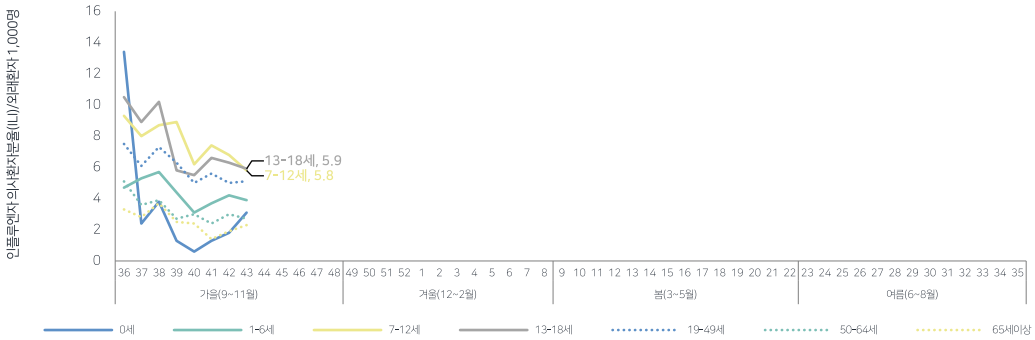
구분	2024년							
	36주	37주	38주	39주	40주	41주	42주	43주
전국	6.1	5.1	6.0	4.6	3.8	3.9	3.9	3.9

최근 5절기 주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전국)



1)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전분율)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총 진료환자 수) x 1,000

2024-2025절기 연령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전국)



바이러스성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 현황

주별 바이러스성 급성호흡기감염증(7종) 및 인플루엔자, 코로나19 입원환자 현황

- (전국) 43주차 바이러스성 급성호흡기감염증 입원환자는 692명으로 전주(613명) 대비 증가*
- * 아데노바이러스, 사람 보카바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리노바이러스 전주 대비 증가
- (전국) 43주차 인플루엔자바이러스 입원환자는 13명으로 전주(17명) 대비 감소
- (전국) 43주차 코로나19바이러스 입원환자는 78명으로 전주(106명) 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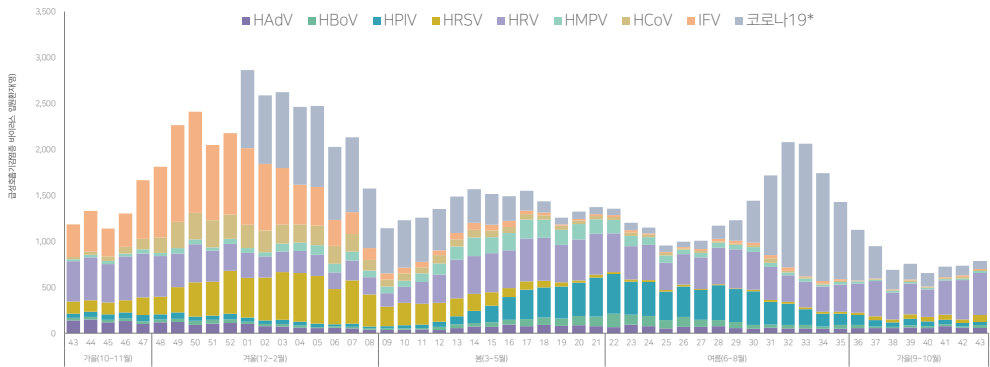
- 43주차(2024.10.20~2024.10.26.) 표본감시 현황은 2024.11.4.(월)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 감염병통계 및 2024년도 43주차 표본감시 주간소식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현황은 표본감시 참여기관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감시 자료를 보고 시점 기준으로 분석한 잠정통계로 변동 가능함

* 의사환자: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자

-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 현황은 표본감시 참여기관에 입원한 환자 감시 자료를 보고 시점 기준으로 분석한 잠정통계로 변동 가능함

- 수행기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감염병관리과 / 전국 198개 인플루엔자 표본감시사업 참여의료기관(의원) / 전국 220개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사업 참여의료기관(병원급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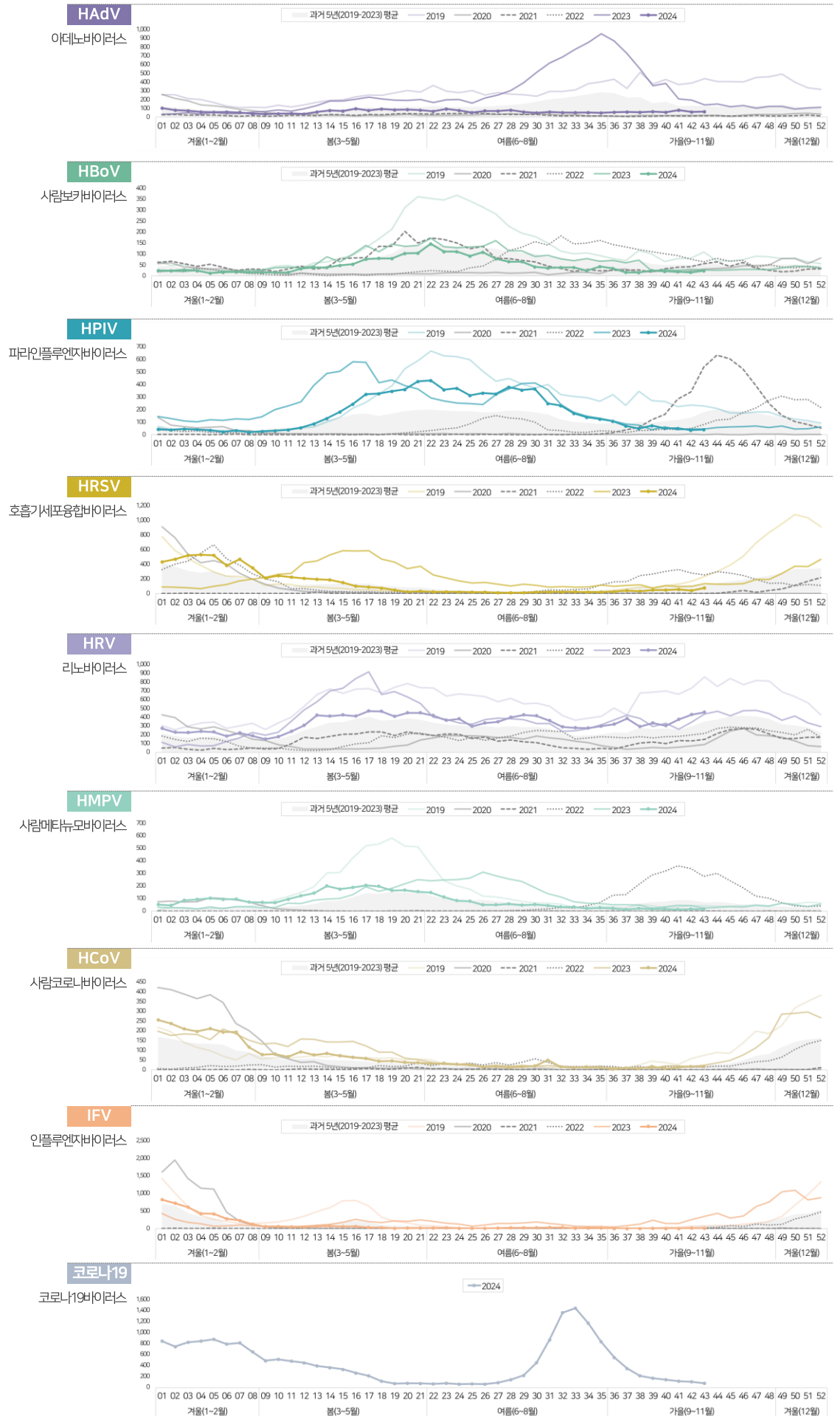


* 코로나19는 2024년 1주부터 포함

감염병 표본감시 신고 현황

● 최근 5년 바이러스성 급성호흡기감염증(7종) 및 인플루엔자, 코로나19 입원환자 현황

<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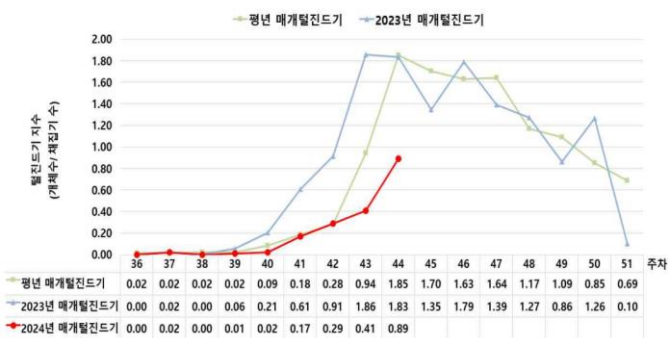


국내 최근 3주간 프프가무시증 환자 증가, 주의 당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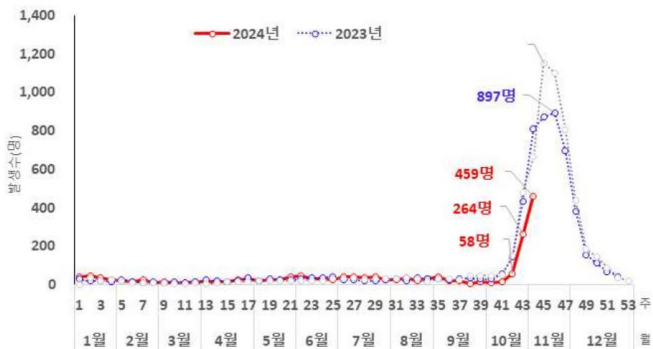
- 최근 3주간 톨진드기 밀도지수 3배 이상 증가 및 프프가무시증 환자 수 약 8배 증가
- 향후 3~4주간 야외활동 시 톨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 준수 당부
- 의료진은 '추정환자 신고기준' 강화에 따라 환자에서 '가피 형성' 반드시 확인

- 질병관리청은 올해 프프가무시증 환자가 전년 동기간 대비 24.5%감소하였으나, 최근 3주간 매개체인 톨진드기 밀도지수가 3배 이상 급증하였고, 42주차 대비 44주차에 환자 수가 약 8배 증가함에 따라 야외활동 시 프프가무시증 감염 예방을 위해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함.
- 프프가무시증을 매개하는 톨진드기 유충이 9월부터 11월까지 왕성하게 활동하여 개체 수가 증가하고, 프프가무시증 환자의 50% 이상이 11월에 집중 발생함에 따라, 향후 3~4주 간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프프가무시증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3급 법정감염병으로, 프프가무시균을 보유한 톨진드기 유충에 물린 후 10일 이내 발열, 오한, 두통, 근육통, 발진 등의 증상이 발생함.
- 물린 자리에 가피(검은 딱지, eschar)가 생기는 것이 특징이며, 치명률은 국내에서 약 0.1%~0.3%로 높지 않으나, 증상의 강도는 높은 것으로 알려짐.
- 또한,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하므로 의심증상이 나타나는 감염 초기에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료진에게 진드기 물림이나 야외활동력을 알리고, 필요시 적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함.
- 질병관리청은 프프가무시균에 최근 감염된 환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올해 9월부터 『24년 진드기 설치류 매개 감염병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추정환자' 신고기준을 강화함.
- 의료기관에서는 프프가무시증 환자로 의심될 경우, 반드시 가피 형성 여부 확인 후 신고가 필요함.
- 질병관리청은 프프가무시증이 가을철에 집중 발생하므로 야외활동시 톨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풀밭에 앉을 때 돛자리를 사용하고, 풀숲에 옷을 벗어놓지 않는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 예방이 가능하며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함.

최근 2년간 톨진드기 감시 현황



최근 3년간 주차별 프프가무시증 환자 발생 현황



※ 출처: 질병관리청 보도자료(2024. 11. 8.)

국내·외 감염병 발생동향

국외 라싸열

- (미국) 미국 내 9번째 유입사례 보고
- 아이오와주에서 서아프리카 지역 여행력 확인된 사망자 1명 발생

- 10월 28일 아이오와주 보건당국은 최근 서아프리카에 방문 후 사망한 시민 1명에서 라싸열 양성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하였으며,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추정 양성 사례에 대한 재검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림.
 - 해당 환자는 10월 초에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입국할 당시에는 증상이 없었으나 이후 증상 발현 및 상태가 악화되어 격리 입원 중 사망하였음.
 - CDC는 사망한 환자가 방문한 국가를 특정하지 않았으나, 서아프리카 지역 여행 중 설치류와 접촉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하였으며, 구체적인 감염경로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진행 중임.
- 라싸열의 사람 간 전파는 제한적(혈액/체액/점막/성 접촉)으로 이루어지며, 증상이 발현된 이후에 감염력이 생기는 특성이 있어, CDC는 공항 또는 항공기에서의 전파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일반 대중들의 위험도도 매우 낮다고 언급함.
 - 또한 CDC는 사망한 환자가 증상 발현 후에 접촉한 사람들에게 대한 조사를 위해 아이오와주 보건당국과 협력하고 있음.
- 이번에 라싸열로 사망한 환자가 최종 확진이 된다면 지난 1969년 이후 미국에서 역대 9번째 해외 유입 사례로 기록되며, 가장 최근의 유입사례는 2016년에 보고된 바 있음.
 - 이전 사례 8건의 추정 감염 국가는 라이베리아가 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나이지리아와 시에라리온이 각 2건, 나머지 1건은 토고로 확인됨.
 - 유럽에서는 2009년 이후 총 7건의 라싸열 유입 사례가 보고된 바 있으며, 프랑스에서도 지난 5월 서아프리카 지역과 관련된 국외 유입 환자 발생보고가 있었음.
 - 한편 풍토지역 외 유입사례 중 독일에서 보고된 2건을 제외하고는 2차 전파는 없었으며, 2건 중 1건은 의료환경 내에서, 나머지 1건은 시신 처리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조사됨.
- 라싸열 발생지역은 서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시에라리온, 코트디부아르, 라이베리아 등이며, 라싸열 감시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나이지리아에서는 연간 약 1만명의 환자*가 지속 보고되고 있으나, 그 외 풍토국가에서의 발생 상황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음.
 - * 2024년(10.26. 기준) 나이지리아에서는 누적 9,604명의 의심환자 발생 보고(확진환자 1,035명 포함)
- 라싸열은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서식하는 특정 설치류와 직접 접촉 혹은 소변, 배설물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특성이 있으며, 잠복기는 최소 2일에서 최대 21일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국외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 (미국) 양파가 유력한 감염원으로 추정
- 미국 내 13개 주에서 총 90건의 장출혈성대장균 감염 확인

- 미국 여러 주에서 유명 패스트푸드 업체인 맥도날드와 관련한 장출혈성대장균 감염 환자들이 발생함에 따라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와 식약청(FDA), 농무부 식품안전조사국(USDA-FSIS) 등은 해당 유행을 조사 중임.
 - 10월 30일 기준, 미국 내 13개 주에서 총 90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고, 입원 정보가 확인된 83명 중 27명이 입원하였음.
 - 한편 용혈성요독증후군으로 진행된 사례 2명(성인 1명, 소아 1명)과 사망자도 1명 발생하였음.
 - 현재까지 확인된 환자들의 연령 범위는 13~88세(평균 30세)였으며, 성별은 여자 37명(41%), 남자 52명(59%), 인종은 대부분 백인(96%)이었음.
-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유행으로 인한 CDC의 첫 공지는 10월 22일에 게시되었으나,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보고된 사례 중 가장 빠른 증상 시작일은 9월 27일로 확인됐으며, 대부분의 사례는 10월 초에 증상이 시작된 것으로 나타남.
 - 전체 환자 90명 중 62명의 섭취력이 조사되었으며, 조사된 인원 모두 맥도날드에서 식사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정확한 섭취 메뉴가 확인된 사람은 58명이었음.
 - 이 중 48명이 양파가 포함된 메뉴를 섭취하였고(83%), 46명은 소고기 패티가 들어간 메뉴를 섭취한 것으로 조사되었음(79%).
- 미국 보건당국은 맥도날드의 소고기 패티 또는 얇게 썬 양파가 대장균에 오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제품 회수 및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CDC는 최근 양파가 감염원일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하였음.
 - 미국 농무부는 우선적으로 소고기 패티를 감염원으로 추정하고 여러 샘플을 검사했지만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고, 패티 출처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였으나 소고기에서는 특이점을 확인하지 못하였음.
 - 한편 FDA는 다른 감염원으로 양파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맥도날드에 양파를 공급하고 있는 Taylow Farms사는 10월 22일 공급된 양파를 모두 회수하였음.
 - CDC는 아직 감염원을 확정하지는 않았으나, 이번 유행이 양파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모든 신규환자는 양파를 회수하기 전 발생하였음을 언급하였음.
- CDC는 확진자가 여러 지역에서 보고된 점과, 실제 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진료를 받지 않고 회복된 사람들의 수를 고려하면 실제 감염된 환자 수는 현재까지 보고된 것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하였음.
 - 하지만 발생이 인지된 이후 신속하게 제품이 회수되었기 때문에 추가 발생 위험은 낮다고 평가하였음.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개요

- ▶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으로 출혈성 장염을 일으키는 질환



감염경로

- ▶ 식수, 식품을 매개로 전파
- ▶ 적은 양으로도 감염될 수 있어 사람-사람 간 전파도 중요



증상

- ▶ 전 연령에서 나타남
- ▶ 발열, 오심, 구토, 심한 경련성 복통
- ▶ 설사는 경증, 수양성 설사에서 혈성 설사까지 다양한 양상



예방법

- ▶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 ▶ 음식 익혀 먹기, 물 끓여 마시기
- ▶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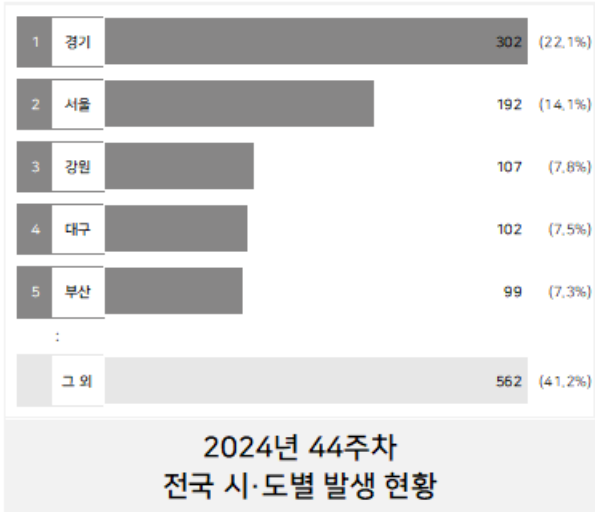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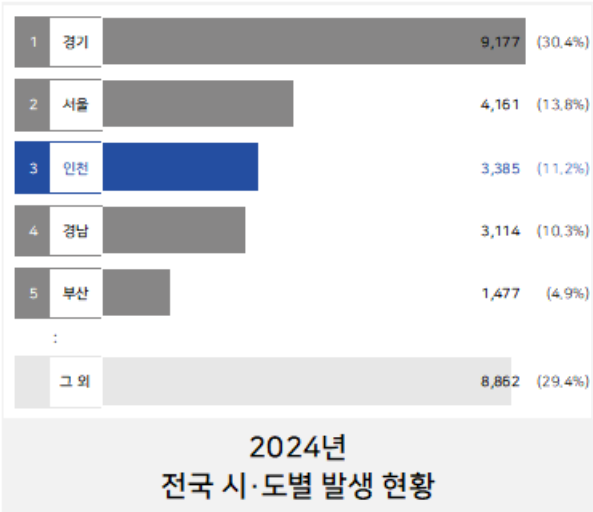
2024년 백일해 발생 현황

- ☞ 발작성 기침 백일해, 전국 학령대 중심 유행 확산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2024.7.15.)
- ☞ 백일해·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최근 4주 크게 유행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2024.6.21.)
- ☞ 발작성 기침 백일해 가파른 증가세, 영아 적기 예방접종(2·4·6개월) 가장 중요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2024.6.7.)
- ☞ 콜록 콜록 백일해, 최근 10년간 동기간(1.1.~4.24.) 대비 최다 발생 !! 우리 아이 예방접종(총 6회) 꼭 챙겨주세요!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2024.4.26.)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에 보고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1. 전국 시·도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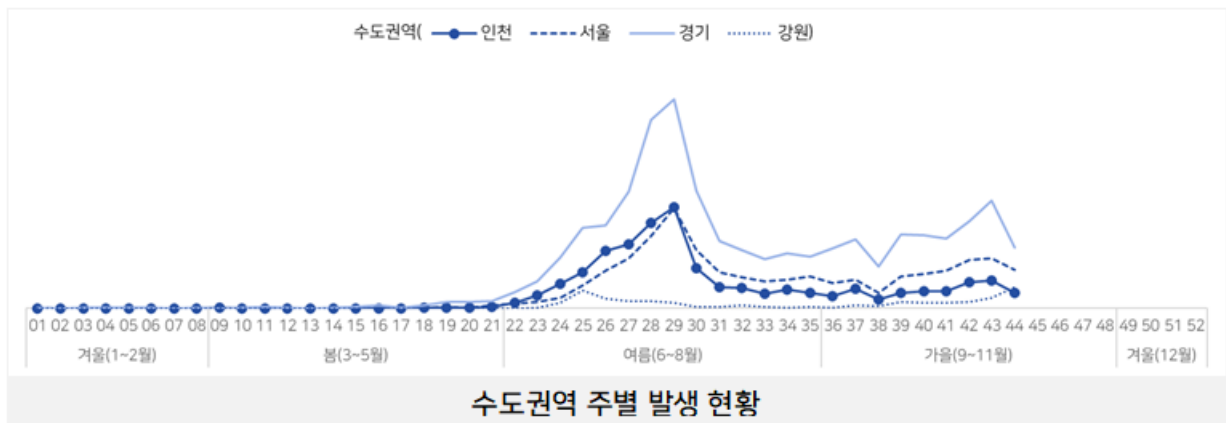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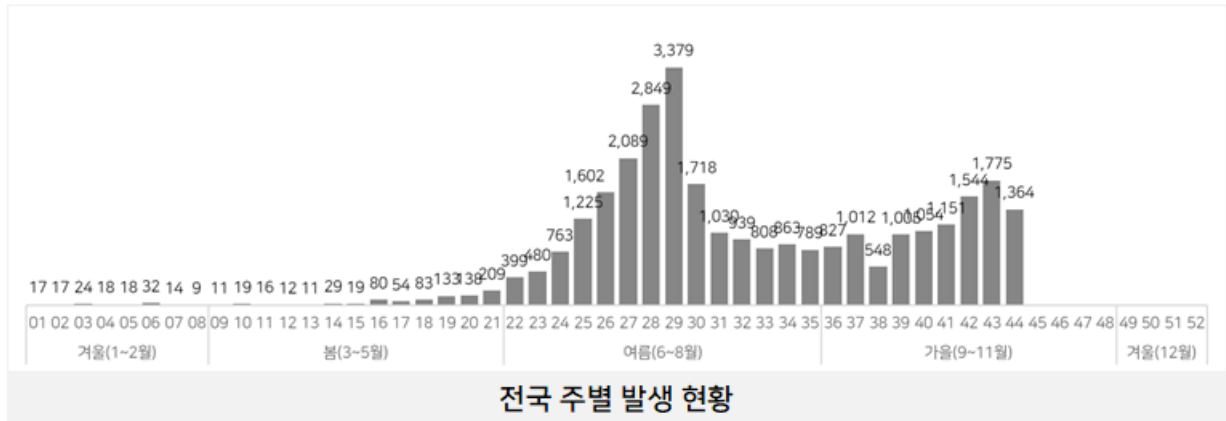
- **누적** 2024년(1.1.~11.2.) 백일해 환자 30,176명 발생
 - 경기(9,177명, 30.4%), 서울(4,161명, 13.8%), 인천(3,385명, 11.2%), 경남(3,114명, 10.3%), 부산(1,477명, 4.9%) 등의 순으로 인천은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주간** 44주차(10.27.~11.2.) 백일해 환자 1,364명 발생
 - 경기(302명, 22.1%), 서울(192명, 14.1%), 강원(107명, 7.8%), 대구(102명, 7.5%), 부산(99명, 7.3%) 등의 순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음



2. 주별 현황

○ 전국적으로 증가세 지속

- **전국** 44주차 1,364명으로 전주(1,775명) 대비 감소(▼23.2%)
- **인천** 44주차 76명으로 전주(137명) 대비 감소(▼4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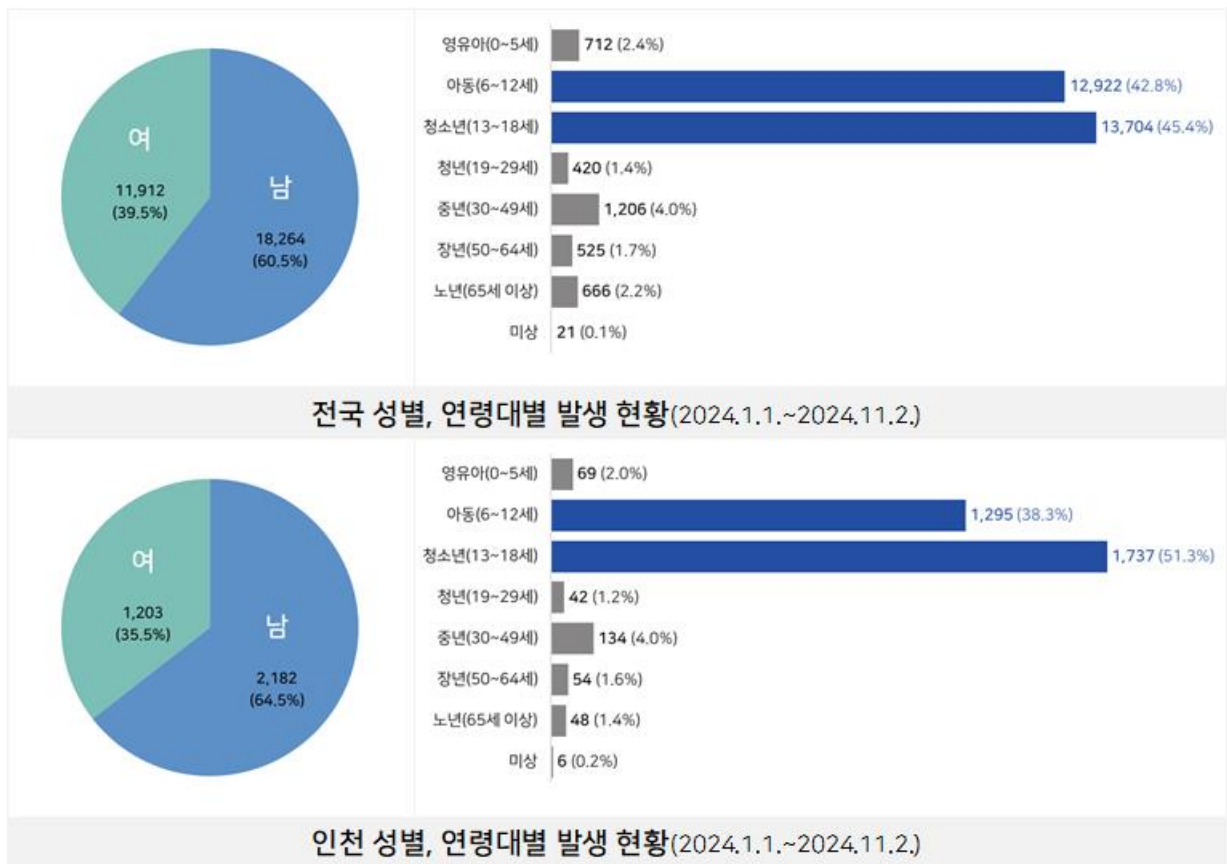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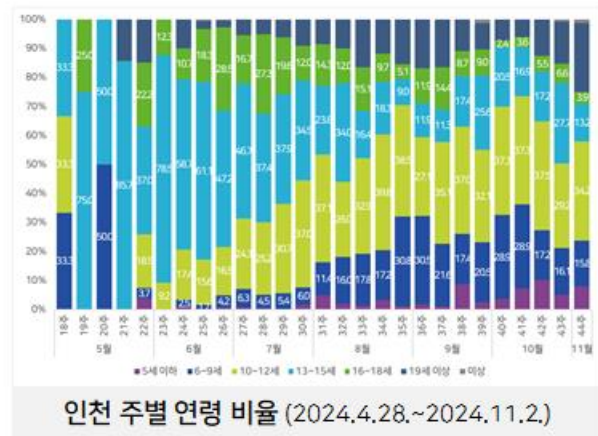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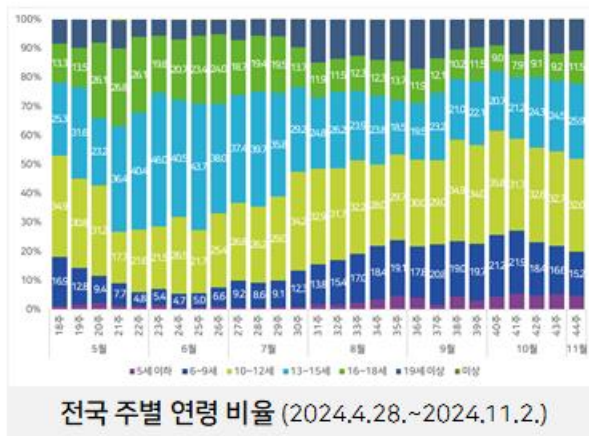


3. 성별, 연령별 현황

○ 중학생·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발생

○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하며 전국적으로 청소년(13~18세)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아동·청소년(6~18세)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함. 최근 초등학교 고학년 연령대(10~12세)의 비율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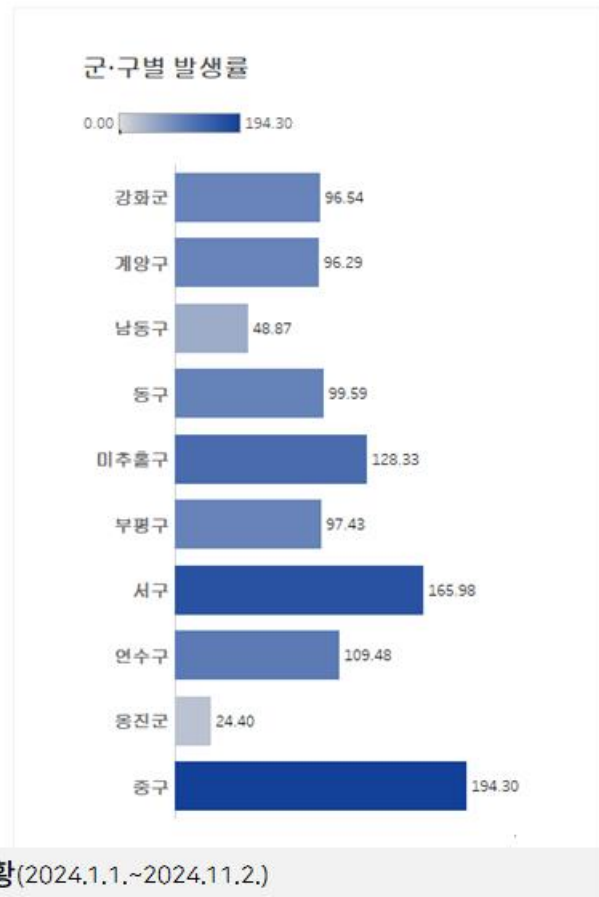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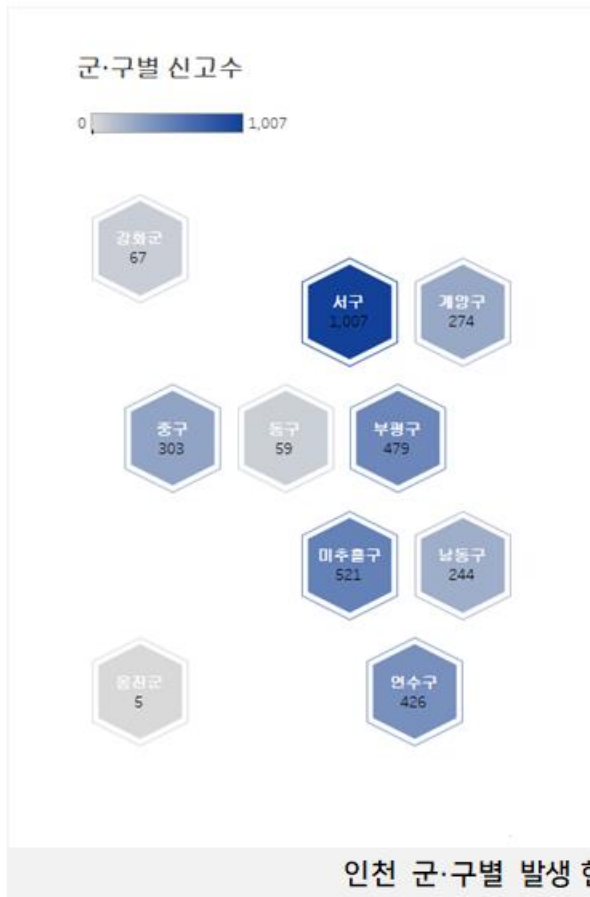
- **전국** 10~12세 비율: ⁴¹주 31.7% → ⁴²주 32.6% → ⁴³주 32.7% → ⁴⁴주 32.0%
- **인천** 10~12세 비율: ⁴¹주 37.3% → ⁴²주 37.5% → ⁴³주 29.2% → ⁴⁴주 3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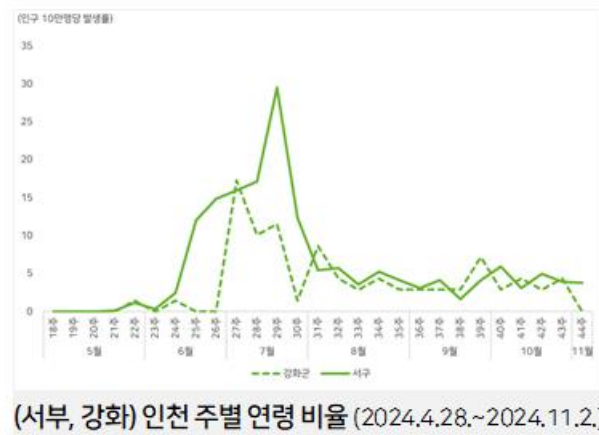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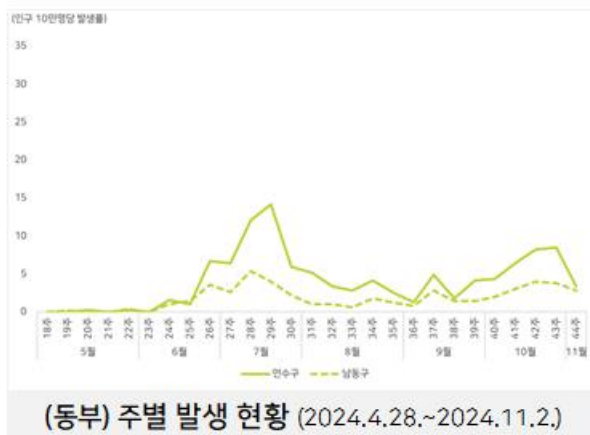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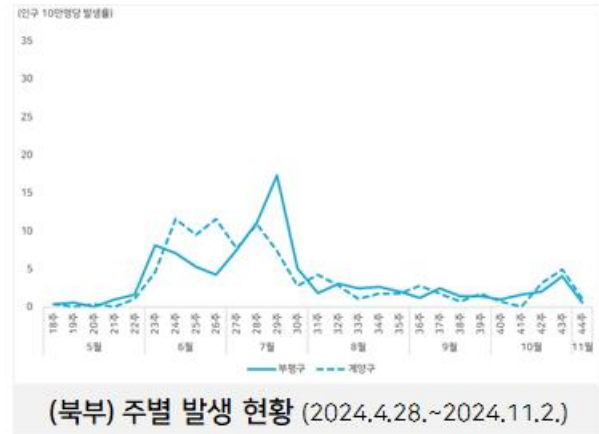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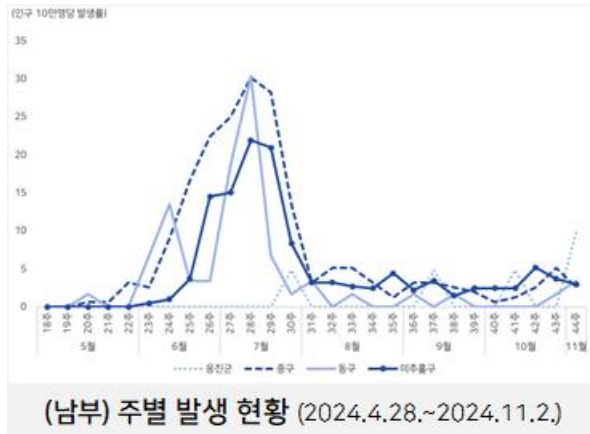
4. 지역별 현황

○ 2024년(1.1.~11.2.) 10개 군·구 모두 발생 중

- **신고수** 서구(1,007명, 29.7%), 미추홀구(521명, 15.4%), 부평구(479명, 14.2%), 연수구(426명, 12.6%), 중구(303명, 9.0%) 등의 순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음
- **발생률** 중구(194.30명), 서구(165.98명), 미추홀구(128.33명), 연수구(109.48명), 동구(99.59명) 등의 순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음



인천 군·구별 발생 현황(2024.1.1.~2024.11.2.)



ICDC Weekly

인천광역시 감염병 주간소식지

